

우리가 가는 길이 곧 기준이다. 노동조합의 정석 “THE 노동조합”

## 13대 집행부 취임식



지난 1월 18일(목) 안암병원 신관 5층 메디힐홀에서 노재옥 지도위원의 퇴임식과 13대 집행부의 취임식이 진행됐다.

### 고대의료원지부의 영원한 별, 노재옥 지도위원 퇴임식

11대·12대 지부장을 역임한 노재옥 지도위원은 퇴임사를 통해 건강상태와 근황을 전달했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계획을 언급했다. 노 지도위원은 “저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전 조합원들이 13대 집행부를 중심으로 조직되고, 간부들은 지부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모든 현안 문제를 잘 처리하고, 단체교섭을 훌륭하게 승리하는 것입니다.”라며 집행부와 조합원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노재옥 지도위원과 함께 활동한 간부들의 퇴임축하 영상이 이어졌으며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이 노재옥 삼행시를 보내와 감동을 더했다. 공로패 전달식을 마지막으로 퇴임식을 마무리했다.

### 13번째 별이 뜨다. 13대 집행부 취임식

**송은옥 지부장, 조합원들의 행복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원과 함께 나아가겠다.**

송은옥 지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13대 집행부가 나아갈 길을 밝혔다. 송 지부장은 “간부, 대의원 운영체계를 확대하고 4천을 넘어 5천으로, 더 단단한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노동정책, 법률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입사에서 정년까지 조합원의 삶에 노동조합이 함께하며 만족을 더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병원의 울타리를 넘어 비정규직 문제해결, 지역사회활동등의 선한 영향력을 더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조합원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고대의료원지부의 자긍심을 찾는 첫걸음이라고 말하며 취임사를 마쳤다.

### 각계각층의 축하와 함께 더 큰 노동조합으로!

이번 취임식에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축하를 전해왔다.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서울지역본부 안수경 본부장,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김진억 본부장이 직접 격려사를 전했다. 또한 진보당 최재희 국회의원 후보,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해 축하인사를 건넸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이문호 교수, 더불어 민주당 김영배의원, 윤건영의원이 축하영상을 보내왔다.

한편, 이취임식에 맞춰 시상식이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상을 구로병원 이수희 조직부장이 수상했으며 서울지역본부 장상은 안암병원 하형석 조직부장이 수상했다. 이 밖에 지부장상, 공로상, 모범간부, 모범대의원, 모범조합원, 모범부서상을 시상하며 이취임식을 마무리했다.

“THE 노동조합”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활동에 시동을 건 13대 집행부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본다.

# 2023년 3/4분기 노사협의회 보고

2023년 3/4분기 노사협의회가 지난 1월 16일 오후 4시 정릉 메디사이언스 파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본회의 시작 전 노사대표위원 인사말을 주고받았다. 사측 대표위원인 윤을식 의무부총장은 “노사의 목표와 방향은 구성원 교직원들이 가장 행복한 직장이 되는 것으로 같은 방향인 것 같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은옥 지부장도 “노동조합 역시 교직원들이 고대의료원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 1. 합의사항 이행 점검에 관한 건

노사기후위기 대응 공동선언	지난 분기 합의사항이었던 의료폐기물 줄이기 캠페인이 현장에서의 운영 어려움이 있어 교직원들이 쓰지 않는 장난감을 기부받아 저소득층이나 해외로 전달하기로 함. 차기회의 시 선언식을 진행하고 노사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함.
-------------------	---

## 2. 논의 안건

52시간 합의부서 운영 및 인력 충원	▲안암 시설팀 : 공석이 장기간 이어질 시 채용공고 시 기준완화, 정·명퇴자리는 정규직으로 채용 예정 ▲안암 진검 : 52시간 합의로 통상근무화 하기로 했으나 인력부족으로 이브닝근무를 하고 있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전달함. ▲방재센터 및 자동제어실 : 1인 근무 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해 추후 인력 검토시 참고하기로 함. ▲안산 흉부외과 체외순환사 : 안산병원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 하고 있으며 병원에서도 고려하겠다고 답변함.
의료기술직 피복규정 변경	감염관리 규정 변경에 따라 구로병원에서 시보리가운을 지급했고 피복규정도 변경하자고 했으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추후 논의하자고 답변함.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보전	부서의 상황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보전을 요구함. 의료원은 간호부에 80% 이상 소진할 수 있도록 하고 어쩔 수 없이 쓰지 못하여 수당 신청하면 지급하겠다고 했으며 간호부 소속이 아닌 부서도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2월이 남았으니 최대한 촉진하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반차코드 생성	수술실 마취과의 원활한 연차 소진을 위한 반차코드 시행을 요구했으며 차기회의에서 2023년부터 2024년 4월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하고 논의하기로 함.
특수부서 심야 연장근무 교통비 지원	응급환자의 수술, 시술로 인한 특수부서의 예측된 심야연장 근무자들에게 카카오택시 사용을 요구했으나 출퇴근 비용은 임금에 포함되어 있어 연장근무 수당 외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일반병동 입원료 개편에 따른 운영	일반병동 S등급, ICU 1등급, NICU 2등급으로 단계별로 모니터링하며, 간호인력을 맞춤인력으로 설계하여 가급적 감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중임을 확인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정부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까지 운영계획을 보류할 예정이며, 계획 확정시 노동조합과 공유하기로 함.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변경 운영	보건복지부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변경 지침에 따라 야간근무 일수를 15일로 시행하고 야간간호료 70% 환류액을 전액 직접 보상할 예정이며, 야간간호료 확정시 노동조합과 계획을 공유하기로 함.
간호부서 배치전환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단체협약 22조에 따라 간호부 배치전환에 관한 세부기준을 노사 협의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며 간호부 근무개선 TFT에서 논의하기로 함.

## 3. 의료원 제출 안건

퇴직 후 재입사(3년간) 금지 규정 개정	사람을 구하기 힘든 부서에서 경력자 채용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 현재의 규정이 불필요해 개정을 요청했으며 노동조합이 동의한 바 노동부에 변경신고를 진행함.
------------------------------	---